

5, 漁港協會
한일
해야
할일



期待에 副應하러 몸부림

自活터전마련 時急

송재성 (韓國漁港協會 감사·(株)成鎬 會長)

미당 (未堂) 서 정주 선생의 “국화옆에서”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찮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도 온갖 정성과 인내와 시련을 겪어내어야 하는데, 하물며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표하는 바가 다른 단체, 개인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협회를 구성하는 어려움이야 더 긴 말을 할 필요가 있으랴.

사막에 꽃피우는 심정

그럼에도 한국어항협회는 고고의 울음소리를 내며 탄생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그리고 벌써 1년이란 세월이 말 그대로 유수처럼 흘렀다.

“본 협회는 어항 관련자의 지식 향상과 공동이익 증진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어항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어 왔는지는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부단히 움직여 온 것만은 사실이다.

취약한 조건속에서도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들의 정성어린 성금과 회비가 단한푼이나마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경비절약에 철저를 기하려고 불과 몇 안되는 상근 직원이 1인2역 혹은 3역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또한 어항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진작시키고, 어항인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월간 ‘어항소식’과 계간 ‘어항’지를 발간하여 불모의 어항문화에 새 장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협회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회원에 대한 끊임없는 봉사로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무한봉사로 실천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금년도 사업의 중점 목표를 첫째, 협회 기능

강화와 역할 증대, 둘째, 어항 관련 사업의 적극 개발, 셋째, 봉사 체제 확립과 회원 친목도모로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구술이 서말이라도 짚어야 보배'란 속담처럼 실천없는 목표는 무의미한 것이다. 특히 어항시설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온 현실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어항인들의 사회적 위치와 인식도가 아직 다른 분야에 비하여 공고하지 못하다는 간접적인 증명이기도 하다.

이에 어항협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어항예산 증액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말하자면 우리의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어항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 '76년까지 10년간 연 평균 14억원에 불과했고 그후 '81년까지 모두 346억원이 투자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일본이 '87년 한해동안 1,700억엔이라는 어항투자실적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액수인 것이다.

더우기 앞으로 다가올 90년대는 200해리 새 해양법 시대를 맞아 어항은 단순한 어선 안전을 위한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활동과 유통기지로 연근해종합개발의 거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대정부 건의는 참으로 시의적절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항 예산의 비중이 수산관계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역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다 해도 최소한 연간 1,000억원 이상은 해마다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이러한 우리의 건의가 다행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슴 뿌듯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꼭 관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어민들에게는 소득증대를, 회원들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

**그동안 정부가
어항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 '76년까지 10년간
연 평균 14억원에
불과했고
그후 '81년까지 모두
346억원이 투자되었을
뿐이다.**

●●●

고 판단된다.

한편, 앞으로 협회가 해 나가야 할 일들도 적지 않다.

심도 깊고 적극적으로

우선 시급한 문제는 항만법과 어항법과의 모호한 업무 영역에 완전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1969년 5월 19일 제정 이래, 20년이 가까와 오는 동안 거의 손대지 않았던 어항법을 경제, 사회적으로 크게 격변한 새 시대에 맞게 개정하도록 이에 대

한 자료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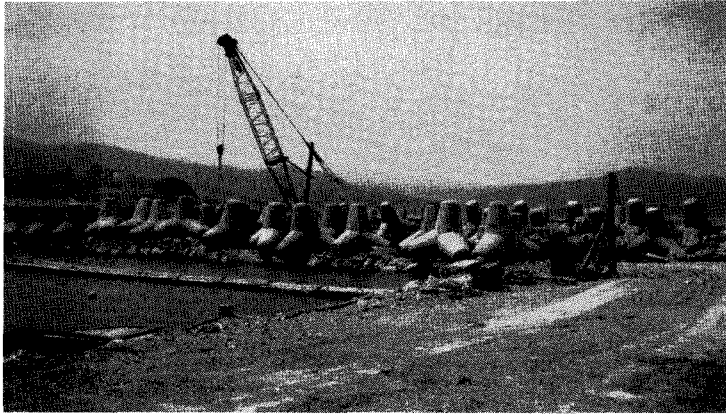
또한 어항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 제1·3종 어항의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일이다. 아무런 자료도 없이 무작정 어항개발을 외쳐본들 그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회는 가능하다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어항별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 자료를 종합하여 어항별 개발사를 발간한다면, 이와같은 사업은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사업중의 하나라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또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해외어항 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이의 전달 문제이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다. 정보에 뒤지면 낙후될 수 밖에 없으며 경쟁에 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어항사를 감안해 볼 때 선진수산국의 어항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전달하는 일이야말로 어찌면 협회의 기능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없이 는 도저히 외국 선진기술을 따라잡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회는 우선 우리와 가장 가깝고 어항과 수산업에 관한 선진국이 틀림없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일본전국어항협회'와 자료 교환은 물론 협력 증진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초빙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 어항기술을



보급것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 유럽 각국과도 교류 대상을 확보하여 우리 나라 어항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금년 하반기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동남아 각국의 어항공사 시찰단을 구성, 현장을 직접 둘러 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우리 회원들이 어항공사를 수행할 때 '1업체 1개소공사' 제도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협회는 숙지하여 이를 내년의 어항공사 발주때부터라도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회원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황무지에다가 어항협회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협회가 잘 자랄 수 있으나, 없느냐는 전적으로 회원들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물과 거름을 주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를 막아주는 협동정신과 일체감이야말로 앞으로 협회

가 제 기능을 다하고 궤도에 오르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협회도 봉사체제 확립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회원들의 따뜻한 배려가 백만 원군의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아무런 기금도 없이 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와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아래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협회 역시 이 점을 가장 당면한 문제라고 깊이 인식하여 이같은 취약한 재정상태에서 하루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협회 기금조성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현실을 회원들이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 준다면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며,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협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끝으로 이것은 어항인 모두의 바램이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자체기금이 조성되어 한국어항협회 회관 하나쯤 가졌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회관건립에 총력을

협회 회관이 하나 있으면 앞에서 열거한 잡다한 사업들을 집약시킬 수 있어서 우리 어항사의 새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어항인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도를 크게 높이는데 틀림없이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처음 국화 한 송이를 심을 때의 심정은 이 꽃이 언제 자라서 활짝 제모습을 드러낼까 몹시 의아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를 끈질기게 기다리며 비바람, 천둥속에서도 소중히 보살핀 결과 마침내 꽃을 피웠다.

어항협회는 아직도 연약한 한 송이 국화다.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며 소중히 보살펴 주지 않으면 어느날 소리도 없이 꺾여 버리고 말지도 모른다.

질책보다는 격려를, 편달보다는 위로를 해줌으로써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그 꽃을 심은 사람은 바로 우리회원 들이며, 키울 사람도 우리 회원들인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윽한 국향을 맡을 사람도 바로 우리회원 자신들이기 때문이다.